

##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'호응'

전북경제통상진흥원, 인터넷 사이트 통해 제공 실시간으로

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인터넷사이트(<http://www.biddk.kr>)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'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.

'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'은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시설입찰, 용역입찰, 물품입찰, 매각입찰 등 전국의 신재된 발주처(조달청, 나리전체, 국방부, 도로공사, 한국전력, 포스코, 한국통신, 아

파트 단지 등)의 입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.

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'를 통해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등기 간 대비 낙찰금액 2,983억여원, 낙찰건수 1,590건, 낙찰업체 1,125업체 규모의 낙찰실적을 기록했다.

이는 지난 동기(2014.5~2015.4) 대비 낙찰건수(887건→1,590건)는 144.2%, 낙찰금액(1,420여억원→2,983억여원)은 152.4% 낙찰업체(612업체→1,125업체)는 145.6% 증가한 수치다.

도경제통상진흥원은 경기침체로

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이 큰 도움을 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.

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도 전자 입찰 낙찰률 향상을 위해 1:1 전문가 컨설팅, 교육과 디수공급자계약(MAS) 컨설팅 등 실무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.

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"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정보 사이트(<http://www.biddk.kr>)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승인을 받으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"고 했다.

/신광영기자



상품 고르는 고객들

'롯데 박싱 데이' 행사 시작일인 2일 오후 서울 종로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.

## 중견기업인과의 정부합동 간담회

###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주최

전북지방중소기업청(청장 정원탁)은 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북지역 중견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'중견기업인과의 정부합동간담회'를 가졌다.

이번 행사는 (주)동우 등 도내 중견기업 22개사와 정부 및 금융 관련 11개 기관이 디자인하게 참석했다.

이날 중견기업 대표들은 운전자금 부족, 중견기업 지원 제외사업 다수, 인력부족 등 현장의 경험과 어

려움을 이야기하며,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이에 기관들은 업체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협의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.

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"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이 지역 경제의 신성장판으로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"고 했다.

/신광영기자

## 한-불, 수교 130주년 기념 우표 발행

### 2종 등 총 70만장 공동으로

전북지방우정청(청장 김병수)은 한국-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우표 2종 등 총 70만장을 프랑스와 함께 공동으로 3일 발행한다고 밝혔다.

그는 "국내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 일자리 수요도 중요하지만 직업별로 세분화된 일자리 수요 예측과 이에 대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"며 특히 '제조+서비스', 스마트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직업별 수요와 국내 인력 공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"고 주장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업군에서는 약 31만 명의 일자리가 줄었다.

한편 생산직, 사무 및 행정지원, 건설 및 토목 등 고용 감소 5개 직